불도 부산, 연등회 열기 예열 '시작'

부산연등축제 특별전 개막 개최
전통등 · 지화공예 · 불교사진 등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內
3월 24일~4월 9일, 무료관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연합회가 3월 24일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에서 '부산연등축제 특별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보운)가 3월 24일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에서 '부산연등축제 특별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특별전은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불교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 보존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전은 부산시민공원 내 미로전시관 4월 9일까지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특별전은 전통등과 전통 지화공예, 불교사진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전통등은 지난 2월 22일부터 3일간 진행된 전통등 만들기 강습회에서 제작한 등 40여 개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찬조 전시한 창작등이다. 제작한 전통등은 대나무와 한지 및 민어부레풀로 엮은 팔각등으로 전통 제작방법을 그대로 재현했다. 전통등 전시에서는 부산연등회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통등 제작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찬조한 창작등은 보리수 나무 아래서 명상하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연꽃을 든 비천으로 꾸민 석등, 연꽃봉오리, 하늘을 나는 새, 무궁화, 한반도로 형상화한 다채로운 등(燈)을 전시해 전시를 풍성하게 했다.

지화공예에서는 천태종 전통지화장 장준 스님의 작품이 전시됐다. 지화 공예는 종이를 자르거나 오려서 예불이나 불교의식에서 사용될 장엄꽃과 민속 작품 제작을 의미한다. 장준 스님은 1982년 대한불교 천태종으로 출가해 전국 사찰 및 불교단체 주관 행사서 지화 장엄을 맡아왔다. 이 외 대전현충원 및 국회 의사당 등에서 특별전을 통해 불교전통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왔다.

불교사진 전시에서는 BBS부산불교방송사진가회 회원들의 작품이 전시됐다. BBS부산불교방송사진가회는 1996년 창립 이후 불상 및 사찰 풍경 등 아름다운 불교문화를 담아 작품 활동을 펼쳐왔으며 각종 사진 전시를 통해 포교에 앞장서왔다.

개막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범수 스님, 사무부총장 동암, 여공, 보신, 대각, 법안 스님, 영준 국원, 범어사 포교국장 눌은 스님, 천태종 장준 스님이 참석했으며 박봉덕 부산시공예명장, 황경숙 부산시 문화재위원, 이현주 범어사성보박물관 부관장, 김태만 BBS부산불교사진가 회장, 김진희 부산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전시 개막식은 테이프 커팅 및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여 사부대중은 전시를 관람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사무총장 범수 스님은 "이번 특별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사부대중에게 감사하며 작품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한층 더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작은 연꽃이 자라 큰 연꽃이 되어 온 세상에 향기를 전하듯 오늘 작품 전시를 위해 노력해준 모든 대중들의 노력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룰 것이다. 이번 특별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연등축제의 부산연등문화제는 4월 28일 오후 6시 개막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14일까지 송상현광장에서 열린다. 부산연등회 연등행렬은 5월 13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리며 제등행렬은 부산시민공원에서 출발해 하마정교차로와 양정교차로를 거쳐 송상현광장에서 회향 될 예정이다.

창원 진불선원, 어울림 한마당



창원 진불선원(주지 무아)이 3월 26일 창원유목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선불교대학 동문 간 어울림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코로나로 인해 4년 만에 열렸으며, 행사에는 진불선원 무아 스님, 박종배 선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진불선원 신도회 및 거사회, 불심동행회 등 신도단체와 선불교대학 동문 1기부터 신입생 14기까지 200여 명의 동문이 참여했다. 무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최선을 다하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해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도량에서 화합하고 정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배 선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은 "이번 체육대회는 코로나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됐다. 감회가 새롭고 걱정이 앞섰지만 많은 동문들의 참여와 협조로 개최하게 되었다"며 "화합과 우정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양산 미타정사, 자비의 쌀 전달

지역민에게 백미 2400kg 후원



자비나눔 실천도량 양산 미타정사(주지 여해)가 3월 22일 경내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봉행했다.

전달한 쌀은 백미10kg 240포 총 2400kg이며, 쌀은 윤달을 맞아 5일간 진행한 초하루기도 동참금 전액과 2000여 명이 동참하고 있는 SNS온라인 후원자의 지원으로 마련했다. 쌀은 관내 지역 소주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해 소외 이웃에게 회향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미타정사 회주 도암 스님, 주지 여해 스님, 정유경 소주동행정복지센터 동장, 김덕환 신도회장, 상경화 사무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미타정사 회주 도암 스님은 "지역의 소외 이웃과 독거세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나눔의 백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지 여해 스님은 "나눔에 앞장서고 동참해준 회원들의 십시일반 정성금으로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행복도량이 되어 기쁘다"며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도량으로 보살행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미타정사는 지속적인 보시 나눔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화엄승가회, 창립 8주년 기념법회 · 나눔

모교발전장학금 등 1100만 원



봉사하는 스님들의 모임 화엄승가회(회장 자인)가 3월 25일 부산불교교육대학 대강당에서 창립 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화엄승가회는 법회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포교에 앞장서온 회원을 격려했다. 이날 화엄승가회는 부산불교교육대학에 모교발전 장학금 300만 원, 부산지역 7개 대학 불교동아리에 각 100만 원씩 총 700만 원, 장애인 포교단체 후원금 100만 원, 총 1100만 원을 전달했다. 또 신입 회원스님 3명에게 회원증을 수여했으며, 적극적인 활동으로 모범을 보인 재가자 3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아울러 부산지역 7개 대학 불교동아리 대표에게 모범 신행상과 부상을 전달했다.

회장 자인 스님은 "화엄승가회가 8년 동안 사회에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스님들이 자비로운 마음과 실천행으로 함께해주셨기 때문"이라며 "어려운 시국에도 함께 봉사한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화엄승가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동참하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부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권성열 부산교수불자회장은 "불교동아리에 관심을 보내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학생들이 아는 만큼 실천하는 인재가 되도록 잘 이끌겠다"고 했다.

화엄승가회는 부산불교교육대학 출신 스님들이 사회봉사와 상구보리하화중생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2015년 3월 창립됐다. 매년 자비연탄나눔, 장애인 행복쌀나눔, 무료급식지원, 부산 김해지역 대학 불교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화엄승가회 소속 사찰은 기존 28개 사찰에서 3개 사찰이 새롭게 동참해 총 31개 사찰이 활동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양산부산대병원 자경원, 일지 스님 취임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법당 자경원(지도법사 일지)이 3월 29일 1층 종교실 법당에서 지도 법사 일지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지도법사 일지 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포교국장 혜명 스님, 보타암 감원 원행 스님, 부산 다대사 회주 화정 스님, 청도 옥련암 회주 영원 스님, 태우 스님을 비롯해 윤영주 양산부산대병원 법우회 회장, 아마데오 수녀, 양산부산대병원 간호사 및 호스피스 관계자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내빈소개 △약사여래불정근 △삼귀의 △보현행원 △반야심경 △취임사 및 축사 △축원 △인사말 △축하특별공연 △공지사항 △사홍서원 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지도법사 일지 스님은 인사말에서 "자경원은 부처님의 자비 속에 쾌유를 발원하는 환자들의 기도 안식처"라며 "자경원은 앞으로도 세상을 향한 문을 열고 등불을 밝혀 모든 불자님과 환자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도사 포교국장 혜명 스님은 "봉사와 나눔이 가득한 자경원에 새로운 지도법사스님이 오셔서 더욱 발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코로나 종식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서 직접적인 환자 대면이 어렵지만 모두가 함께 협력해 노력한다면 환자들을 위한 자비 법당으로 성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윤영주 양산 부산대병원 법우회 회장은 "그동안 법사스님의 공석으로 걱정이 많았고 기다렸었다. 앞으로 법우회도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환자들을 위한 안식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법당 자경원은 영축총림 통도사가 2009년에 개원한 치유기도 공간이다. 2017년에 부산대학교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이 개원해 임종을 위한 영적 돌봄에도 앞장서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경남산청연합회, 합동방생법회

경호강 및 덕천강 생태 보전



산청불교사암연합회(회장 수완)가 3월 25일 경호강변 산청IC부근 레프팅 승선장 주차장에서 합동방생 및 치어방류 대법회를 봉행했다.

산청불교사암연합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산청군과 진주시의 생명줄인 경호강과 덕천강 생태보존 및 환경살리기를 실천했으며 생명의 가치와 불살생의 가르침을 널리 알렸다. 행사는 식전행사 난타 및 어린이합창단공연, 삼귀의, 삼신이운, 헌향, 시련의식, 개회식, 대회사, 축사, 내빈소개, 방생, 시식, 사홍서원, 산회가, 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회장 수완 스님은 "방생은 생명존중을 근본으로 하는 불교의 자비실천의 덕목 중에 가장 수승한 보살행의 실천"이라며 "생명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살려주는 것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호강과 덕천강이 맑고 청정하게 보존되고,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훼손되지 않게 보존하여 산청군이 국민의 의지처로 거듭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